

역도 3관왕 '영광의 상처'



누가 볼까, 봉대 속에 꼭꼭 감추는 것 같군요.
괴명이 든 손바닥, 굽은 손가락, 남자의 손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제 88회 전국체전 기간 중 정광고
에서 열린 역도 여고부 75kg급에서 3년 연속 3관왕을
들어올린 이애라(18·광주체고 3년)양의 손바닥입니다.

한국 신기록을 작성할 기대주로 손꼽히는 선수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살짝 봉대를 들어 올리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셔터를 눌러았습니다.
찍어놓고 보니 피가 흘러내려 봉대에 말라 붙었습니다.
깊게 베인 듯한 상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이 선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긴장감 외에 아픈 표정은 찾기 힘듭니다.
곧이어 자신보다 훨씬 무거워 보이는 바벨을 힘껏 들어립니다. 3년 연속 3관왕이라는 기록을 일궈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수의 꿈은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 고향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르트고, 피를 짊어든 손을 움켜쥐면서 바벨을 들어올리며 흘리는 이 선수의 소중한 땀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뉴스퀴즈 83·84회 정현숙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83·84회 뉴스 퀴즈 추첨 결과, 정현숙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정씨는 15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83·84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75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정현숙·해남군 해남읍
2등 ▲김현남·영광군 영광읍

85.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최근 인간이 이기적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와 이 사람들을 2007년 노벨 평화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앨 고어
②조지 부시
③무하마드 유누스
④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등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I love MY student



손 성 호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던 날 긴장된 표정으로 청소년수련원을 들어설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설렘으로 고교생활을 시작하면서 대학진학이라는 큰 명예를 생각하기도 전에 학교 안내를 받고 힘들어 하는 너를 보면서 어떻게 교육을 해나갈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 급우들과 친밀감

이한열 열사와 자랑스런 광주학생

을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너를 보면서 기쁨도 갖게 되었다.

학교행사와 너의 어깨를 짓누르는 학습량을 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교문을 들어서는 너를 보면서 미래의 너를 그려보기도 했다.

지난 제주도 수학여행 때 영산의 정기를 봄에 담고 멋진 수험생으로 거듭나기 위해 목까지 차오르는 숨을 물어쉬면서 백록담에서 기파하는 내가 정말 대견했다.

교내 이한열 사진전이 있었지만 5·18민주화운동이나 6·10항쟁에 대해 전혀 상식이 없어 어리지 못해 기우거리면서 무언가를 느껴보려 했던 너의 모습이 순수해 보였다.

한라산 기슭에 노루 한 마리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을 때 소리 죽여 벤치에 앉아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너는 점차 아름다운 고교생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이한열 열

사 20주기를 맞이하여 흥상을 제막하는 기념식이 계획되고 있었다.

대입전형이 익숙해지면서 내신·수능 등급제로 적용이 되므로 내신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 기말고사 준비에 몰입하고 있을 때, 이한열 열사 흥상제막의 안내 플래카드가 걸리면서 무척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궁금해 하던 너의 모습이 생각난다.

교내 이한열 사진전이 있었지만 5·18민주화운동이나 6·10항쟁에 대해 전혀 상식이 없어 어리지 못해 기우거리면서 무언가를 느껴보려 했던 너의 모습이 순수해 보였다.

교육감, 국회의원, 유가족,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혁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기념식을 지켜보면서 어리둥절하던 조사(弔辭)가 날카로워졌다. 어제기자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때 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헛빛에 반사되어 전해 올 때 가슴 뭉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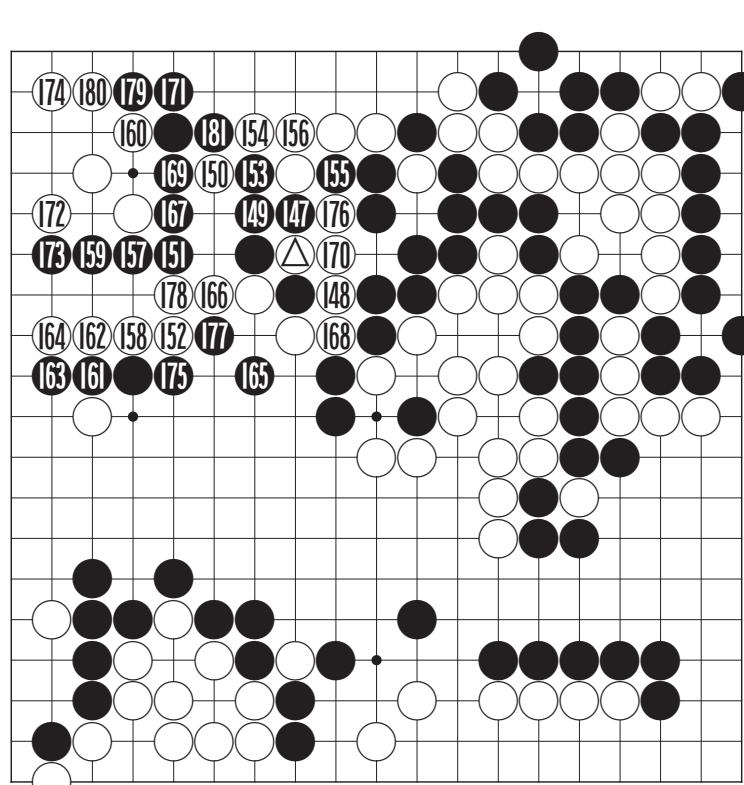
민주주의의 환한 불을 밝힌 선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등·하굣길에 늘 묵념을 읊리고, 중대한 결심이 필요할 때면 흥상앞에서 묵상하고 주변 청소에 앞장서는 너를 보고 이제는 확실히 달라져 가는 자랑스러운·아름다운 광주학생을 그려본다.

실력 으뜸, 철령 으뜸! 와쳐대는 교통학립 캠페인에도 참여하면서 멋진 광주학생으로 성장해 가는 너를 보면서 교육의 효과에 감동하기도 한다.

이제는 달라져 바르게 성장한 너를 선배가 포근히 감싸주고 있다. 이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어 가면 하구.

한열아! 하는 외침을 가슴에 물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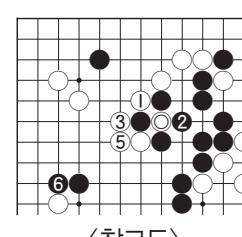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광주진흥고등학교 교감>



실패로 끝난 최후 항거 9보(147~181)

최강부
준결승 1국

白 김희관 5단 黑 선계성 6단



백 스스로 끊어 김희관 5단이 151로 뛰어 봉쇄할 수단이 없어 억지임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선계성 6단은 승리를 확신한 듯 손길에 거침이 없다. 흑 159까지 돌파하고 나서 이번에는 161로 다시 좌변마

부수를 띠 위 간 장면이다. 흑 160은 흰 턱 막히는 대못질이다.

흑 168로 끊은 것은 최후의 항거다. 그러나 흑 167을 응수할 수가 없어서 최후의 한수도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176까지 오른쪽 흑을 잡기는 했으나 상변이 돌파되어 소득이 없다. 흑 181로 사는 순간 바둑도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후의 수순은 총 165. 숨이 턱 막히는 대못질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루이, 한국리그서 이세돌 제압

전남 대방 노블랜드의 루이 나이웨이 9단이 지난 14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07 한국바둑리그 12라운드 2경기 4국에서 제1회차 이세돌 9단과는 꺾을 수단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 9단과의 상대전적(1승4패)에서 절대열세에 놓여있던 루이 9단은 260 수 끝에 백 3집 반승을 거두며 1승2패로 밀리던 승부를 2-2,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대방 노블랜드는 마지막 주자인 윤성현 9단이 서건우 4단에게 흑 불계패, 숙원이던 리그 첫승을 달성하지 못했다. 광주 KIXX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13라운드에서 서울 신성건설과 격돌한다. <윤영기자 penfoo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6일(음 9월 6일 쯔제)



36년생 화재가 보이니 깨진 불도 다시보라. 48년생 해질녘에失物(失物) 미루리를 잡아라. 60년생 타인과 시비는 손사를 뿐이다.

72년생 시비는 편안으로 화해로 처리하라. 84년생 오류의 외출은 좋은 일을 부르노니 즐겁게 나가보라. 행운의 숫자: 06.39



37년생 바리단 일이 일사천리 추진. 49년생 집안이 불안하니 종심을 잃지 마라. 61년생 속전속결전권화석 급한 일이 속출. 73년생 외적인 화려보다 내적인 실속의 마음을 써야함. 85년생 자신은 광대아니 남의 집 잔치에 춤추자는 말라. 행운의 숫자: 19.40



38년생 발전이 있으니 하던 일을 매진하라. 50년생 부부간에 외출과 출걸을 즐겨보내라. 62년생 부모는 자녀의 고민을 살펴보라. 74년생 안간이 걱정되며 모습이 흐린니 형제 부모 찾기 어렵고 안부를 확인하는 일은 부끄러울지도 모르겠다. 행운의 숫자: 19.36



39년생 교통사고 조심하고 음주운전 절대 금물이다. 51년생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장을 생각해보라 자신이 상대방일 것이다. 63년생 춤추고 노래는 하니 마음 또한 즐긴다. 65년생 혼란에 흥분하는 듯이 차지하고 있다. 77년생 옛 일이 괴롭혀오니 과거를 둘러보고 재정립하라. 행운의 숫자: 10.38



40년생 상황이 어려우니 마음을 편히 하라. 52년생 남을 도울 수 있을 때가 행복하니 자신을 배풀어야. 64년생 개운한 훈련이 있다. 76년생 옛 일이 괴롭혀오니 과거를 둘러보고 재정립하라. 행운의 숫자: 02.39



41년생 협조하면 시비는 사라진다. 53년생 꿈꾸는 헌전하라 그려면 성체하리로다. 65년생 결정은 여유 있게 옮겨라. 77년생 도처에 괴로움이나 조급만 안내하던 나이 오리다. 행운의 숫자: 02.29



42년생 소망은 꿈꾸는 자만이 갖는다. 54년생 협상이 龜頭로다. 양보하며 진행하라. 66년생 계획한 일을 광포하게 78년생 인생의 맛과 멎을 아는 시기이니 자신 있게 행동하라. 행운의 숫자: 10.27



43년생 눈과 귀가 부드러운 하루로다. 55년생 옛 친구가 찾아오나 마음은 무겁다. 67년생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 한 번째다. 79년생 갑작스런 재난이 오리니 주변을 살피고 철저히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04.33



44년생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니 옛일을 살펴보라. 56년생 좋은 기운을 생각하며 밝색하니 결실은 있으리라. 68년생 자녀는 자신의 꿈이나 꿈과 같이 키우라. 80년생 좋은 사람과 만나는 하루다. 행운의 숫자: 08.25



45년생 妻家족 사돈거래에 불화가 떠돈다. 57년생 양보하면서 손사고 피해간다. 69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부려운 일자이다. 81년생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라 재벌이 저질로 찾았다. 행운의 숫자: 05.26



46년생 할 일이 많으니 바쁘게 움직여라. 58년생 달리는 상대가 나타나니 원하는 대로 다 주어라. 70년생 여기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마음을 다져라. 82년생 속은 터지니 서두르지만 않으면 대가는 된다. 행운의 숫자: 13.37



47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 시비는 본의 부주의다. 59년생 상황이 급변하니 적절히 대처하라. 71년생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이울을 수 있으니 수양해야 하리로다. 83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는 게 좋다. 행운의 숫자: 02.09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브랜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12>

I lost my passport.

제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A : What's the matter?
B : I lost my passport.
A : Where did you lose it?
B : Well..... I don't know exactly.
A : Then, why don't you look in your hotel room first?
B : Yes, I will.

A : 무슨 일이십니까?
B : 여권을 잃어 버렸는데요.
A : 어디에서 잃으셨습니까?
B : 음.....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A : 그러면, 먼저 호텔 객실에서 찾아보십시오.
B : 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 Why don't you~? = ~하시지요.
= You'd better~
* first : ad. 먼저
* I lost~ : ~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하요우 니혼고 <1012>

だらだらしてゐる。

뒹굴뒹굴 늘어져 있어.